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 입당 송 | 시편 31(30),3-4 참조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제1독서 | 예레 17,5-8

### 화답 송 | 시편 1,1-2,3,4와 6(◎ 40(39),5ㄱ)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  
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  
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 제2독서 | 1코린 15,12,16-20

### 복음환호송 | 루카 6,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  
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복 음 | 루카 6,17,20-26

### 영성체송 |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상대적 박탈감과 참 행복

운전 중 이쪽 차선의 차들은 꿈쩍도 안 하지만 반대 차선은 텅 비어 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이쪽은 정체가 없지만, 맞은편 차들이 서 있을 때 묘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은 '상대적'이며 참 행복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이번 주 성경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제1독서(예레 17.5-8)는 저주와 행복에 관한 상반된 예언을 들려줍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스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예레 17.5)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예레 17.7-8)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는 주님에게서 떠나 있기에 교만해지기 쉽지만,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이는 겸손 안에 머물기에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제2독서(1코린 15.12,16-20)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1코린 15.17)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희망의 근거이기에, 이 믿음과 희망은 현세적 행복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1코린 15.19) 이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믿음과 희망과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영원을 지향합니다.

복음(루카 6.17,20-26)은 참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다른 이들과나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만족감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사람에게 의지하여 주어지는 일시적 보상과 위로와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은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고통의 현실까지 감내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며 현실에 무관심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되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나 만족만을 지향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믿음과 희망으로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초대받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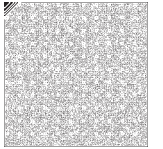
안차코 해변, 페루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예레 17,7)**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입니다. 고기잡이에 있어서 어부를 따를 자는 없습니다. 지난날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잣대로는 따르기 힘든 말씀임에도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지요. 예수님을 향한 무한신뢰입니다. 살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최주봉 요셉  
서울가톨릭연극협회장

## 서울가톨릭연극협회

2015년,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발족하면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도 짧고, 믿음도 부족한 저에게 선배님이 찾아오셔서 ‘자네가 회장을 좀 맡아야겠다.’라고 부탁하시는데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가톨릭연극협회 이전에도 가톨릭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모였었다는데, 정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협회를 만들자니, 회칙도 만들어야 하고,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도 있어야겠고, 임원진들도 꾸려야 하고, 무엇보다 회원들이 모여야 하니 여기저기 연락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자고 해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공연을 통해 봉사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톨릭 연극인들이 모여 첫 공연을 하는데 임치백 요셉 성인에 관한 작품이었습니다. 연출은 유환민 신부님이 맡아 주셨고, 공연장은 교구청 마당에 만든 무대로 삼아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별히 염수정 추기경님도 ‘체포되어 온 천주학생이’ 중 한 명으로 찬조 출연을 해주셨지요.

그 공연을 앞두고 제작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한 후 제가 모델로 활동하던 ‘여명 808’의 남종현 회장님께 공연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리려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날 밤에 회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청하고 헤어졌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간절하게 했던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 사정을 다 아시니까,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떻게 설득할지 절 이끌어 달라고 졸랐지요. 온갖 장황한 말로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때의 기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면담하며 후원을 부탁 드리는데, 제가 길게 말을 잇기도 전에 너무나 흔쾌하게,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톡 내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불교 신자라서, 제가 가톨릭 연극을 위해 후원을 청하는 것도 좀 면목이 없던 차에, 관대하게 베푸는 마음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원 한 사람도 저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참 절실했고, 하느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간절함을 보시고 도와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첫 공연으로 <요셉 임치백> 무대를 가졌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저희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 벌써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던 활동이 많이 멈췄지만, 처음 계획대로 공연을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연극인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끔 지향을 모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컷 묵상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6

##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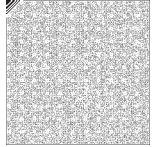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선 하느님께 지은 죄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에 따르면 죄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고 합니다.<sup>(385-390항 참조)</sup> 즉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 하느님을 외면하고 등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다음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짓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느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처지를 하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짓는 죄 중 가장 큰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지옥이란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유다는 죄를 지은 후 절망을 했고, 스스로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베드로 역시 배신의 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믿는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sup>(마태 12,31-32; 마르 3,28-29; 루카 12,10 참조)</sup>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모든 죄에 포함되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 바라시는 하느님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음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죄인이 진정 회개한다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단죄하거나,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단정한다면, 이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큰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범위는 모든 죄에 해당합니다. 하느님을 배신하고 하느님을 등진 사람까지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sup>(마태 18,22)</sup>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용서 못 하실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입니다. 대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회개’(悔改)의 동의어는 ‘회두’(回頭), 즉 ‘고개를 돌리다.’, ‘하느님을 바라보다.’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신앙과 동일한 의미이고, 죄의 반대말입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sup>(로마 5,20)</sup>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의 단죄가 아니라 회개, 즉 다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선행, 극기, 봉사, 단식을 통해,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 영혼은 맑아지고, 그러면 하느님 말씀이 잘 들리고, 하느님 은총이 더 잘 보일 것입니다.



## 결핍의 상처로 얼룩진 인생, 롯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인생의 여정을 항상 같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날 때부터 그러했으며,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에도 롯이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삼촌 조카가 아닌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사이였습니다. 불행하게도 롯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삶의 가장 든든한 후견인이었던 시대였기에, 롯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롯을 가엽게 여기고 가능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며, 더 신경을 썼을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피를 나눈 친아버지와는 모든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 자칫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떠받들어주고 무조건 옳다고 봐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핍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이기적이고 노골적으로 다른 이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심적으로 강한 피해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 자신의 결핍 상태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보상심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도움을 주면 처음에는 고맙게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받는 것을 당연시하며 오히려 도움이 없을 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도 재산(양 떼와 소, 노비 등)이 많아져 자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자매간에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계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싸움은 재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의 싸움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분쟁

이 반복되면 동거보다는 분가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힘을 합해야만 간신히 살 수 있었던 과거의 가난했던 시절엔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가하기를 권하며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곁이 번지르르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곁으로 화려한 소돔은 실제로는 죄가 범람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욕심을 가지고 한 선택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전쟁과 약탈행위가 일어나면서 롯은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히는 굴욕을 맛봅니다. 그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재물도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돔 땅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는 자신의 재물과 땅이 못내 아쉬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가장 믿었던 재물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었던 재산이 사라지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믿음을 상실합니다. 롯은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하느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1900~1944)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중요한 것을 잊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삶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창세 13~14장; 19장 참조)



토마조 알비노니 | 사진출처: 나무위키



## 나를 위로하는 속도, 아다지오 (Adagio)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작곡가는 보통 자신의 작품에 이 곡을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연주해야 할지를 적어놓습니다. 이런 빠르기 지시어는 보통 이탈리아어로 약속되어 있는데, 천천히 걷는 속도를 말하는 ‘안단테(Andante)’, 중간 속도(보통 빠르기)라고 하는 ‘모데라토(moderato)’ 등이 그런 예지요.

‘아다지오(adagio)’ 역시 이런 지시어의 하나로, 음악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느리게. 안단테와 라르고 중간 정도의 빠르기. 소나타나 교향곡, 협주곡의 제2악장이 흔히 ‘아다지오’로 되어있다.”라고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지오’라는 지시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단순히 빠르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일종의 감정이입 같은 것이긴 하지만, 어떤 정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다지오의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그 곡의 선율의 아름다움을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으며, 나아가 위안을 얻고 힐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음반사는 아다지오 빠르기의 음악들만을 모아서 <아다지오(Adagio)>라는 타이틀로 음반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아다지오 음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은 아마도 알비노니(Tomaso Giovanni Albinoni, 1671~1751, 이탈리아)의 ‘아다지오 g단조(사단조)’일 것입니다. 수많은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본인들에게 맞게 편곡해서 연주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이 곡의 정확한 곡명은 <현악기와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사단조)>인데, 우리에게 온 오랫동안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알비노니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음악학자들은 이 곡이 실제로는 20세기 음악학자 지아조토(Remo Giazotto, 1910~1998, 이탈리아)가 쓴 곡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죠. 알

비노니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전기를 쓴 지아조토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드레스덴의 작센 주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악보 조각을 입수했는데, 이 작품이 알비노니의 트리오 소나타(혹은 교회 소나타)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단일 악장의 곡을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현악기와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사단조), 토마조 알비노니에 의한 두 가지 주제 아이디어와 베이스에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알비노니 곡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고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지아조토가 발견했다는 그 악보 조각이 정말 알비노니의 작품인지, 지아조토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센 주립 도서관 소장품 목록에는 지아조토가 발견했다는 알비노니 악보 조각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아다지오 작품의 실 작곡자에 대한 논쟁이 있단들 그것이 우리 감상자들에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이 곡이 가지고 있는 구슬픈 듯 우아한 선율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아다지오는 한없는 위로의 속도로 다가올 뿐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고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의 품에서 위안을 얻고 휴식 하라고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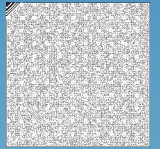


**알비노니-지아조토**  
현악기와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사단조)





**아다지오 성악 버전,**  
노래: 일 디보 (실황)



# 과학과 신앙은 함께 탄생한 쌍둥이다!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이 글을 쓰는 저는 가톨릭교회의 사제이면서 동시에 이론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부터 주변의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 가톨릭교회의 교리 내용과 현대 과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과학과 신앙 간의 조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정확히 다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과학과 신앙 간에 조화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 둘 모두가 하느님을 섬기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면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밤 하늘을 바라보아도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2~30년 전까지만 해도 밤하늘을 바라보면 상당히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우주의 광활함에 크게 감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저 우주, 저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저 우주, 저 별들을 만든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종종 아름다운 바닷가를 거닐면서 넓고 푸른 바다의 모습에 압도되곤 합니다. 이 바다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거리를 던져줍니다. ‘도대체 저 바다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저 바다를 만든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러한 여러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지혜서의 한 구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지혜 13,5) 많은 신앙인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동시에 그 자연의 창조자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분께 찬미를 드리곤 했습니다. 바로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이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를 물으면서, 동시에 웅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을 창조한 “그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지혜서의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생겨난 자연과학과 신앙은 사실 출발점이 동일합니다. 자연과학과 신앙은 둘 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만 질문이 좀 다를 뿐입니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 웅대한 자연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 자연을 저런 식으로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근본적인 법칙이나 원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신앙을 가진 많은 이들은 “저 웅대한 자연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는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과학과 신앙은 그 태생적인 출발이 같은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둘 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엄마로부터 함께 탄생한 쌍둥이인 것입니다!**

## 김성태(요셉)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 소속 김성태(요셉) 신부님께서 지난 1월 31일(월)에 선종하셨습니다. 김성태 신부님은 1942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66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명동성당, 소신학교 교사, 신림동(현, 서원동)성당,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 교리신학원 원장, 당산동성당, (재)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으로 사목하시다가 2015년 원로사목자가 되셨

습니다. 2월 3일(목)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97년 2월 15일 이삼복 요한 신부(83세)
- 2002년 2월 17일 고명철 아우구스티노 신부(65세)
-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87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 교구정일림

####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2월28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장지혜 루치아, 허진영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 향심기도와 관상기도 침묵피정

때: 3월11일~13일, 4월4일~7일, 4월14일~17일, 4월22일~24일, 5월2일~5일, 5월20일~22일, 6월7일~10일, 6월17일~19일  
그 외 소그룹·단체 / 당일·숙박 피정 가능  
회비: 2박 15만원, 3박 20만원 / 지도: 김귀용 신부  
곳: 용문청소년수련장(주최) / 문의: 031)774-3587

#### 제42회 가톨릭 에코포럼(은오프라인)

주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과 신앙인의 정치적 참여"  
발제: 박동호 신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토론: 조경자 수녀(장상연합회 JPIC분과) 외  
때: 2월23일(수) 19시~21시  
곳: 가톨릭회관(명동) 1층 강당(사전 대면 참여 신청 필수, 선착순 60명) / 대면 참여 신청 주소: <https://bit.ly/42회가톨릭에코포럼>  
유튜브 생중계: 링크(<https://bit.ly/2EZafbf>) 또는 '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검색  
문의: 02)727-2283, 2272 환경사목위원회

####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2 전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2월14일(월)~3월1일(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7일~6월13일 매주(월), 명동 교구청 대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3월7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 2) 청년(35세미만 청년), 직장인(일반신자) 성서못자리

때: 3월2일~6월8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원·동부 화요일/서부 목요일)

수강기간: 3월9일~6월16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3월7일~6월30일 / 회비: 10만원  
수강방법: 에드워드ID와 비밀번호로 에드워드에 접속하여, 한학기 20강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강

####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이론연구소 제 17기 졸업전: 전관  
전시일정: 2월16일(수)~21일(월)

####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을 위한 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일 세번째(토) 2월19일 10시30분  
곳: 명동성당 옆 영상센터 경당(상설고해소 건물)  
문의: 02)318-3079

#### 명동성당 성서40주간 모집

때: 3월8일부터 매주(화) 10시~12시(40주간)  
곳: 서울대교구청 본관 501호  
강사: 가톨릭성서모임 수녀  
회비: 8만원 / 문의: 010-5271-9700(문자)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미음의복녕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06차 미사 2월1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 분량: 덕원자치수도원구 고산 분당, 원산 분당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권성여 프란치스코'  
때: 매달 셋째주(화) 2월15일 오전 10시(171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나눔 봉사자 교육

대상: 신입 예비 신자 교리 나눔 봉사자  
때: 3월8일~5월31일(주 1회 90분, 총 12주)  
방식: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자세한 내용은 공문참조)  
회비: 6만원(2월22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5 사목국 교육지원팀

#### 충만한 삶을 향한 '사랑의 기쁨' 수업

대상: 생명윤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때: 3월2일~4월20일 매주(수) 19시30분~21시(8주)  
곳: 서울대교구청 501호  
목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을 통해 신자들이 일상의 삶 안에서 겪게 되는 사랑, 혼인, 가정, 고통, 죽음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고하며, 보다 충만한 삶을 위한 복음적 관점을 정립함 / 회비 없음(선착순 30명)  
신청마감: 2월23일(수) 오후 5시까지  
신청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사목국

### 직원모집

####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상주) / 1522-9415

####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계약직 1명)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능력(오피스·한국) 갖춘 사람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2월28일까지 이메일(ssvpk@hanmail.net) 및 팩스(02-756-0465) 접수

#### 꾸르실로회관 직원 모집 / 문의: 02)337-8588

분야: 주방장, 미화, 시설관리 보조 각 1명(계약직)  
대상: 세례받은 분, 자격증 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주임 신부님 추천서 /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 모집

분야: 카리타스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명(1년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 2월18일(금) 18시까지 접수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경력자  
세부사항 필히 참조-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tp://www.caritasseoul.or.kr)-알림참여-채용공고 참조)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직원 모집

육아휴직 대체 근무(3월~8월 / 6개월)  
업무: 영상 촬영 및 편집, 디자인 등  
대상: 세례받은 분, 전공 및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마감: 2월18일까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 이메일 문의

#### 요셉의원(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① 약사(자격증 소지자·반일근무), 관리자경력(구배·재고관리) ② 사회복지사(1급 / 2급인 경우 사회복지사업 분야 경력자) ③ 재무팀장 법인 재무경력자(터존회계프로그램 사용자, 예산·결산업무) ④ 치위생사(자격증 소지자·반일근무) ⑤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인원: 각 분야별 1명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2월28일(월)까지 이메일(sdlee@josephclinic.org) 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http://www.josephclinic.org)) 참조

####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2월27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인준단체 일람**

**모임**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아이 엄마 아빠를 위한 정체성 피정(ICPE)**

때: 2월19일(토) 10시~20일(일) 16시 / 문의: 010-3889-1272  
곳: 마리스타 교육관(합정) / 대상: 자녀 동반 가능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성경통독 모임(역사서)**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010-6561-8835  
때: 3월3일부터 매주(목) 19시30분 / 온·오프 병행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때, 곳: 2월24일~27일·3월25일~27일·4월22일~24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우이동) / 문의: 02)990-1004

**침묵·대월기도 영성수련**

때, 곳: 2월18일(금)~20일(일)·3월11일(금)~13일(일)·3월  
25일(금)~27일(일)·4월8일(금)~10일(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주최) / 홈페이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문의: 032)465-0835, 010-2505-4702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월25일~28일·3월11일~14일·3월25일~28  
일·4월8일~1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루하 젊은이 성령세미나(청년성령쇄신봉사회)**

내용: 새 생활을 위한 성령 피정  
때, 곳: 3월12일~13일,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회비: 3만5천원 / 문의: 010-4944-5149  
카카오톡 채널: 루하 / 인스타그램: @ruah.fiat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 완독	3월11일(금)~19일(토)	곳: 도미니코
말씀 피정	3월24일(목)~27일(일)	피정의집(주최, 횡성)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9차	2월18일(금)~26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00차	3월18일(금)~26일(토)	
제101차	4월22일(금)~30일(토)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 나눔, 율례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눈꽃산행 피정	2월19일~22일, 2월26일~28일
자연순례 피정	3월5일~7일, 3월19일~21일
성지순례 피정	3월12일~15일, 3월26일~29일

**음악치유 및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반**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치유 피정반	3월5일~19일 매주(토) 10시~13시	회비: 15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3월8일~22일 매주(화) 14시~17시	회비: 15만원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때: 3월6일~8일, 3월17일~19일, 3월26일~28일,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미사반주자 교육(9강동지구오르간교육연구소)**

곳: 천호동성당 내 / 문의: 010-3203-8183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소)**

블로그: blog.naver.com/pc21s / 010-5313-6554(문자)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6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바  
리스타,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월3동)

**'예닮영성' 기초 과정**

곳: 가톨릭회관 202호 / 주1회·12주·1시간30분 교육  
문의(접수): 02)472-3217(www.물어주는샘.org / www.  
wellingspring.org) 가톨릭영성아카데미 물어주는샘

1. 나의 하느님	3월14일(월) 10시30분	홍성만 신부
	3월16일(수) 19시	주수욱 신부

**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곳: 의정부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 팩스: 031)837-0144  
카페(http://cafe.daum.net/sangjang2014) 손님게시판 참조  
문의: 031)874-6272 연령회연합회·상장례학교

봉사자반	3월19일~6월4일 매주(토) 9시~18시	40명
자격증반	3월19일~11월12일 매주(토) 9시~18시	30명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2월15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례 3년 넘은 견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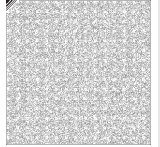
**32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기도학교(2년 과정) 모집**

문의: 010-4495-7764 영성의 집, 010-2037-9262 본원  
3월 개강 / 주최: 전교가르멜 수녀회 영성의 집·본원

영성의 집	대면	둘째·셋째주(화) 10시~12시30분
		둘째·셋째주(화) 19시30분~21시30분
	비대면	둘째·셋째주(목) 10시~12시30분
		둘째·셋째주(목) 14시20분~16시30분
본원	대면	첫째·셋째주(수) 10시~12시
	비대면	둘째·셋째주(수) 20시~21시30분

**가톨릭 다도회 봄학기 회원 모집**

내용: 다도와 인성 예절 교육  
때, 곳: 3월14일~6월13일 매주  
(월) 14시~16시, 교육장(인사동)  
문의: 010-6618-1313, 010-8912-2640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 청년반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  
(화)~청년 저녁반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수강생 모집 및 월례회**

곳: 가톨릭회관 / 문의: 010-9590-4560, 010-5236-5493  
1) 아카데미: 3월3일 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2) 월례회: 매월 넷째주(월) / 1월·7월 휴회

**이콘연구소 20기 신입생 모집 / 문의: 02)313-9973**

이콘제작 및 연구(3년 과정) / 대상: 65세 미만  
개강: 3월2일 / 실기시험: 2월19일(토)·2월21일(일) 10  
시30분(택1), 가톨릭출판사(중구 중림로 27) 신관 6층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강 지급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과정 신입생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수편)으로 공부  
추가접수: 3월31일(목)까지 우편접수 가능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목요신학강좌 특례 I (한국CLC)**

때: 3월17일~4월28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8만원(대면·비대면) / 문의(접수): 02)333-9898

3월17일	하느님 나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송용민 신부
3월24일	하느님의 다스림을 성찰하는 체험 이야기	주원준박사
3월31일	예수님께 하느님 나라를 물다	김학철박사
4월7일	'이미'와 '아직'사이	한민택 신부
4월21일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	박동호 신부
4월28일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	현재우박사

**2022년 1학기 '여정' 성경공부 / 문의: 010-7194-3780**

때: 3월7일~6월10일 / 접수: 2월20일(일)~27일(일)  
오전반 대면·비대면(Zoom)강좌 동시 개강(수강자 선택)  
회비: 6만원 / 주최: 예수의가리마스수녀회 여성성서교육관

	10시~12시(대면·비대면)	20시~22시(비대면)
3월7일(월)	역사서 1	역사서 1
3월8일(화)	성경통독, 렉시오디비나(대면)	성경통독, 렉시오디비나
3월16일(수)	마태오복음서	마태오복음서
3월10일(목)	바오로서간	.
3월11일(금)	시편·지혜문학	.

**가톨릭대평생교육원 2022년 봄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3월14일(월) / 문의: 02)2164-6587, 8  
곳: 가톨릭대평생교육원(부천 역곡) /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	전례꽃꽂이, 로마서읽기, 전례합창지휘
전문가	ITEC아로마, 그림책교육
자격증	유리피인꽃꽂이, 보존화가공화, 복지원예, 한방꽃차, 죽음교육, 독서심리, 미술심리(2급·1급)·노인미술, 반려동물아로마·애견미용·행동교정, 컴퓨터
문화예술	사진, 민화, 보태니컬아트, 글쓰기, 피아노, 성악, 오르간, 편곡, 회계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2월22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창덕궁 앞)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때: 4월부터 1년 과정 11시~13시  
 (목) 신약 (금) 구약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주제: 가톨릭 사상사(교회의 대사회적 가르침-교황문헌을 중심으로) / 강사: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때, 곳: 3월11일~6월10일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총13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내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30%할인)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사무실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검정고시 및 수능준비, 자기계발(메이크업·제과제빵·바리스타·영상·사진·필라테스·영어대화 등)  
 자원봉사자: 대학생 이상 성인, 수학·과학 학습지도 가능하신 분 /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2022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수요 특강**

때: 3월2일~5월25일 매주(수) 13시30분~14시50분(12회)  
 현장 강의·실시간(유튜브) 강좌·영상 녹화 강좌 중 선택  
 회비: 10만원(현장 강의는 부분 수강 가능·과목당 1만원)  
 주제·강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홈페이지(www.fec.or.kr) 참조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뇌 발달연구검사 참여자 모집**

연구과제명: 청소년기 문제적 인터넷 사용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뇌영상 연구 / 대상: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및 성인(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내용: 뇌 구조 및 기능 MRI 촬영, 자기보고 설문검사(총 2시간30분 소요) / 실시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독기술제어센터(연구책임자: 전지원 교수)  
 참여방법: 전화상담 후 참여가능여부 안내  
 신경인지검사결과제공 및 교통비를 포함한 사례비 지급  
 문의: 010-7173-7589, 02)2258-7586

**예수회센터 프로그램(3월 개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매주(목) 14시~16시	이창현 신부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신수련	매주(월) 10시~12시	김정옥 신부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매주(화) 14시~16시	서명원 신부	
실시간 Zoom 강좌	영어성경 나눔-Mark's Gospel Chapters 6-16	매주(목) 18시~19시 반, 19시30분~20시30분 반	Kister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2022년 상장례 연도전문강사 양성교육과정**

대상: 본당 또는 관련단체에서 연도전문강사로 활동하실 분 / 회비: 각 학기당 26만원  
 내용: 상장예식, 상장례성음악, 연도이론과 가창 교육기간: 1년 과정(1학기과 2학기로 진행)  
 때, 곳: 매주(목) 19시~20시30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 /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010-3211-8941 연구간사(가톨릭 상장례음악연구소)

**모집**

**방학3동성당 주일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미사: (일) 오전 11시 / 서류: 교적 사본  
 대상: 가톨릭신자이며 반주 경험자(해당분야 전공자)  
 3월6일(일)까지 이메일(jys9059@naver.com) 및 우편(우 07518,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50길 16 방학3동성당) 접수 / 문의: 02)2661-2234

**2022년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견진 받은 16세 이상 교우  
 지원서 교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308호  
 2월28일까지 접수 / 문의: 02)779-3881(근무일: 토·일·월), 010-9600-6358 작은형제회, 02)793-2070 콘벤뚜알, 010-7261-8233 카푸친, 010-4171-0898 청년회(만 35세 미만)

**미사**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2월14일(월) 10시, 가톨릭회관 2층(205-3호)

**한국콜럼버스 기사단 월레미사**

때: 매일 셋째주(토) 2월19일 11시(미사·성시간)  
 곳: 군중교구청 대성당 / 문의: 010-6244-0254

**인나**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전문심리상담: 갈등을 겪는 가족·부부·개인(우울·공황·강박·분노) 종합심리검사 / 문의: 010-5604-1882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가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삼양동 선교분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roller자비의수녀회)

**노인 공동생활가정**

시설명: 바오로 성모의 집(유료)  
 대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여성  
 곳: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  
 운영기관: 샬트르성마로수녀회  
 문의: 02)381-7510, 010-2755-168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 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반: 강의 3월3일부터 매주(목) 10시~11시30분(14주),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금요반: 비대면 온라인 강의(Zoom) 3월4일부터 매주(금) 14주, 치유적 강의 및 훈련 10시~13시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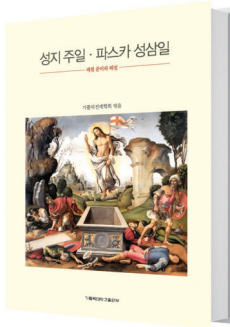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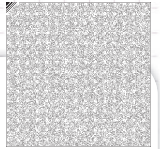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통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2월22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2월20일(일) 14시~16시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예수고난회	2월27일(일) 11시~16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월19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의방선교회	3월6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성지 주일 · 파스카 성삼일

가톨릭전례학회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26쪽 | 1만원  
문의: 02)740-9718

성지 주일과 파스카 성삼일 예식의 특성과 주제, 봉사자의 선정, 전례 동작과 표현, 성가의 준비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예절을 거행하는 사제와 부제, 준비하는 봉사자들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전례적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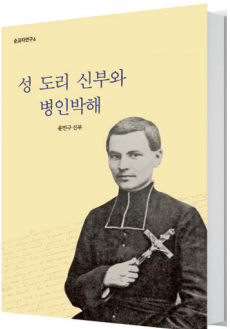


신간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임인택 지음  
좋은땅 | 172쪽 | 1만2천원  
문의: 070-4866-5349

사랑은 사랑할 때에만 느낄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에 느낄 수 있다. 저자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하느님의 사랑(기적)을 체험한다.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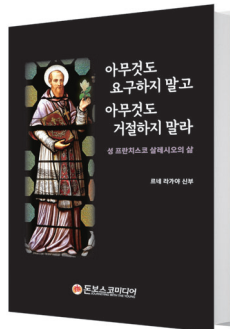


신간

순교자연구 6  
성 도리 신부와 병인박해

윤민구 지음  
기쁜소식 | 436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1865년 5월 조선에 선교사로 왔다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인물로만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을 용감히 실천하고자 했던 꿈을 지녔던 한 젊은이가 어떻게 그 꿈을 키우고 이루어 갔는지를 담았다. 도리 신부의 생애와 도리 신부가 순교한 병인박해와 그 배경에 대해 알려준다.



신간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라

르네 라가야 지음  
돈보스코미디어 | 104쪽 | 1만원  
문의: 02)828-3525

2022년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1567~1622)이 서거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살레시오회는 수호성인의 천상탄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분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록한 요약본 전기를 출간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왜 귀족의 삶을 버리고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되었는지 알려준다.



연주회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제23회 정기연주회  
The Sound of Music

공연시간: 2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공연장소: 월계동 성당 대성전  
문의: 02)338-7831 / 전석 무료

마니피캇 어린이합창단은 노래를 통한 사회봉사와 사랑의 실천, 가톨릭 복음 선포를 위하여 1994년 3월에 창단된 합창단으로, 매년 갖는 정기 연주, 해외 연주, 특별 연주와 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니피캇'(Magnificat)은 라틴어로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이다.



cpbc FM

cpbc 라디오 드라마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특집  
'바보 김수환'

방송시간: (월~토) 오후 4시 50분~5시  
문의: 02)2270-2114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떠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2022년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가톨릭평화방송(cpbc FM)은 2019년 선종 10주년에 제작했던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을 다시 방송한다.

◆ 재대조 봉헌해주신 분들 ◆

(집수기간 : 1월 5일 ~ 1월 30일)

봉헌금 총액 : 9,042,000원

주도권	경속	: 2,000,000원	의명	: 500,000원
김기	숙남	: 500,000원	김학	: 200,000원
김의	숙숙	: 200,000원	박계	: 200,000원
김의	열열	: 200,000원	장조	: 200,000원
박은	명명	: 150,000원	김인	: 100,000원
이주	진진	: 100,000원	서진	: 100,000원
이세	영영	: 100,000원	의영	: 100,000원
안종	경경	: 100,000원	안보	: 100,000원
안홍	연연	: 100,000원	박용	: 100,000원
정오	원원	: 100,000원	정문	: 100,000원
안수	춘춘	: 100,000원	조유	: 100,000원
김민	진진	: 100,000원	조영	: 100,000원
박유	화화	: 100,000원	황장	: 100,000원
김민	혜혜	: 100,000원	김보	: 100,000원
김민	성성	: 100,000원	의명	: 100,000원
김민	영영	: 100,000원	김혜	: 100,000원
김민	린린	: 100,000원	이정	: 100,000원
김민	일일	: 100,000원	이경	: 100,000원
김민	선선	: 100,000원	의영	: 100,000원
김민	숙숙	: 80,000원	김애	: 60,000원
김민	남남	: 60,000원	김현	: 60,000원
김민	원원	: 60,000원	김변	: 60,000원
김민	현수	: 50,000원	김동	: 60,000원
김민	현희	: 50,000원	박영	: 50,000원
김민	영영	: 50,000원	조근	: 50,000원
김민	명명	: 50,000원	지영	: 50,000원
김민	희희	: 50,000원	이주	: 50,000원
김민	애애	: 50,000원	함영	: 50,000원
김민	석석	: 50,000원	정민	: 50,000원
김민	주주	: 50,000원	정혜	: 50,000원
김민	아네스	: 50,000원	의영	: 50,000원
김민	민곤	: 50,000원	김영	: 40,000원
김민	혜숙	: 30,000원	김동	: 30,000원
김민	성희	: 30,000원	강동	: 30,000원
김민	주완	: 30,000원	강영	: 30,000원
김민	민규	: 30,000원	이주	: 30,000원
김민	지원	: 22,000원	김희	: 20,000원
김민	정수	: 20,000원	김우	: 20,000원
김민	명명	: 20,000원	임빈	: 20,000원
김민	삼삼	: 20,000원	김진	: 20,000원
김민	명명	: 20,000원	양지	: 10,000원
김민	연연	: 10,000원	최선	: 10,000원
김민	영녀	: 10,000원	최순	: 10,000원
김민	승순	: 10,000원	김혜	: 10,000원
김민	순금	: 10,000원	김민	: 10,000원
김민	근수	: 10,000원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월 31일 ~ 2월 6일 : 2,690,000원)

누계 : 2,911,325,423원

김영철	: 2,000,000원	의명	: 360,000원
김태훈	: 200,000원	김태영	: 100,000원
의명	: 3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주 연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주 연장에 따라 2월 7일 (월) 0시부터 2월 20일(주일) 24시까지 평일미사는 백신 접종 여부 및 교적에 상관 없이 선착순 299명 까지 참석 가능하고, 주일미사의 경우 백신 접종 2차 완료자는 대성전으로, 미접종자와 2차 미완료자는 교스트홀로 입장하여 미사 참례가 가능합니다. 미사 참례하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줄을 서 대기하셨다가 '안심콜'과 함께 'QR코드 인증 또는 역학조사용 명단을 작성'하고 체온 체크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성당 전체 개방 : 매일 오전 7시 ~ 오후 9시

■ 개인 기도와 목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성전을 개방**합니다.

· 월~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 주 일 오후 1시 ~ 오후 3시

(※토요일,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미개방)

■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지하성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합니다.

■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성직자 · 수도자 고해성사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명동대성당 미사

요 일	미사시간
월요일	07:00, 10:00, 18:00
화~금	07:00, 10:00, 18:00, 19:00
토요일	0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일요일 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성전 입당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별도로 적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

● 명동늘푸른청년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기간 : 2월 13일(주일) ~ 2월 26일(토)

·대상 : 35세~45세(1978년생~1988년생) 가톨릭 신자

·문의 : 네이버 카페 '명동늘푸른청년성서모임'

☞ cafe.naver.com/ourbible3545

카카오톡 '명동늘푸른청년성서모임'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 환영미사 및 약력 》

2월 13일(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새로 부임하신 조인기(암브로시오) 부주임 신부님과 김영우(스테 파노) 보좌 신부님의 환영미사로 봉헌됩니다. 따뜻한 환영과 함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약 력

#### ※ 조인기 (암브로시오) 부주임 신부 ※

- 2016. 2. 5. 사제 서품
- 2016. 2. 16. 잠원동 성당 보좌신부
- 2018. 2. 13. 신사동 성당 보좌신부
- 2020. 2. 18. 사당5동 성당 보좌신부

#### ※ 김영우 (스테파노) 보좌 신부 ※

- 2020. 2. 7. 사제 서품
- 2020. 2. 18. 길음동 성당 보좌신부

### 《 재의 수요일 》

3월 2일(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속죄와 보속의 사순 시기가 시작되며, 당일 모든 미사 중에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마 대신 **머리에** 재를 엮는 예식이 있겠습니다. 예식을 위해 2021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받아 가신 **성지(聖枝)**는 2월 27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 입학미사 관계로 당일 오전 10시 미사는 '파밀리아 채플'에서 봉헌됩니다.

### ◎ 첫 고 해

1월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간 첫고해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고해성사 후 세례식 사진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 2월 15일(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봄학기 개강

- 주제 : 3545 늘푸른 시노드
- 일시 : 3월 5일~5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명동대성당 內 고티스트 홀
- 대상 : 35세~45세 청년 (1988년생~1978년생)
- 접수 : 2월 19일(토) & 26일(토) 오후 5시~6시 고티스트 홀 현장 접수 (접수비 3만원)
- 문의 : 카카오 플러스 채널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 ◎ 가톨릭성서모임 '성서 40주간' 수강생 모집

'성서 40주간'은 신·구약 성경을 40주간 내에 읽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40주간 동안 일주일씩 한 주기로 하여 6일 간 각자가 매일 성경을 읽은 후 7일째 되는 날 함께 모여 읽은 성경의 이해를 돕는 강의를 듣습니다. 성경 전체를 자세히 완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40주일을 통해 매일 성경을 읽고 맛들이며 생활화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 개강일시 : 3월 8일(화) 오전 10시
- 강의기간 : 3월 8일 ~ 2023년 1월 1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낮 12시
- 강의장소 : 명동 교구청본관 501호
- 방학기간 : 7월 말 ~ 8월 말 (5~6주), 휴강(성삼일, 성탄, 본당 행사, 공휴일)
- 강 사 : 가톨릭성서모임 수녀
- 교 재 : 「성경읽기안내」(영원한도움 성서연구소 편저)
  - ① 「성경읽기안내 구약1」 13,000원
  - ② 「성경읽기안내 구약2」 12,000원
  - ③ 「성경읽기안내 신약」 11,000원

※개별적으로 구입, 개강일인 3월 8일(화)에는 「성경읽기안내 구약1」 필히 지참 !

- 교재신청 : 성서와함께 출판사(☎ 822-0125, 0126) 또는 성서와함께 인터넷서점(www.withbible.com)
- 수 강 료 : 1인 8만원 (1, 2학기)
- 신 청 : 2월 13일(주일)~3월 6일(주일) 본당 사무실 또는 성당마당 신청 부스 (※선착순 100명)
- ※주보 또는 홈페이지 게시글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당 사무실로 제출하시거나 2월 셋째 주일과 3월 첫째 주일, 성당마당 신청부스에서 대면 접수
- 문 의 : ☎ 010-5271-9700 (※문자 문의)

◎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한 설맞이 떡국용 가래떡 판매에 성원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익금(834만원)은 '가톨릭 사회복지회'로 전달되었습니다.

### 《 우리들의 정성 》

- 연중 제 4 주일 헌금.....15,912,000
  - 해외 원조 주일 2차 헌금.....8,030,000
  - 교무금 (1/31-2/6).....26,694,700
  - 연중 제 5 주일 헌금.....17,668,000
  - 감사헌금 (1/31-2/6).....2,076,000
- 김 요셉 / 박 안젤라 / 백 모니카 / 백 안젤로  
신 마리오 / 심 알베르도 / 안 미카엘라  
안 안드레아 / 이 사라 / 이 율리아나  
임 사무엘 / 조 엘리사벳 / 최 로사리아  
최 안나 / 현 베로니카